

발달장애 청소년 양육자의 사회적 의사소통 인식과 요구도 차이 분석

The Analysis of Difference in Awareness and Needs of Social Communication of Guardians Caring for Adolescent with Development Disorders Adolescents

박현, 이명순
상지영서대학교 언어재활과

Hyun Park(cominglove@hanmail.net), Myung-Soon Lee(flash-on@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영역 별 수준 인식과 사회적 의사소통 요구 정도를 발달장애 청소년의 연령, 장애 발견 시기, 장애 등급, 장애 유형, 언어 치료 기간에 따라 알아보아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의사소통 지도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자료들은 18.0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발달장애 청소년의 연령, 장애 발견 시기, 장애 등급, 장애 유형, 언어치료 기간에 따라 비 모수 검정 Mann-Whitney test와 Kruskal-Willis test 등 비모수 검정과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 청소년의 의사소통 수준 인식과 요구도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연령, 장애 발견 시기, 장애 등급, 장애 유형, 언어치료의 기간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앞으로 다양한 분석과 표집을 통한 차후 연구로 사회적 의사소통 재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 서비스 시행의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발달장애 청소년 | 의사소통 | 사회적 의사소통 |

Abstract

This study the awareness and the demands of the parents on the communication level for social participation of the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ere identified and investigated the relation on client's age, detection time of the condition, disability grades, handicapped types, speech therapy period. For the non-parametric test, Man-Whitney U test, and Kruskal-Wallis test were performed and for post-hoc test, Scheffe test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that the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awareness and the demand of the communication level of the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ccording to the age of children, time of discovery, disability grade, type of disability and speech therapy period.

In conclusion, the speech therapy for the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should be made in the dimension of communication for the purpose of social participation. The follow-up research to emphasize the social support and the institutional backup will be required.

■ keyword : | Adolesce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 Communication | Social Communication |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 일정시기에 따라 주 양육자 및 타 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인관계능력이 성장해 나가며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 슬픔, 화 등의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사회에서 수용되는 방식으로 습득하고 표현한다[1]. 즉 인간은 기초적인 가족 관계에서 또는 또래 관계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의사소통과 정서를 습득해 나간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은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회적 관계에서의 부적절한 행동과 구어적 특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기 이후에도 지속된다. 특히, 발달장애는 기타 장애보다 의사소통의 한계, 적응행동의 문제 등이 심각하다[2]. [3]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언어는 발달단계에 맞는 구어적 및 비구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문제를 나타내고 또래 관계 및 관계 기술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였다. [4]는 발달장애 청소년은 적응 행동에 있어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일탈되어 있고 이러한 일탈로 인하여 주변의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며,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발달장애 청소년은 사회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장애 청소년들 보다 더 많은 실패감을 경험하고 자아개념과 동기 수준이 낮아 사회적 상호 작용의 결핍을 나타낸다[5].

발달장애 청소년의 사회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언어 능력이다[6]. 즉, 언어를 한 개인의 인지적·사회적 기술과 연관된 밀접한 개념으로 볼 때 의사소통의 결함은 사회적 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언어 사용의 결함은 곧 사회적인 결함을 가져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어렵게 되고 발달장애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청소년 장애인의 궁극적인 재활의 목적을 살펴보면, 생활의 자립이며 이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교육받은 장애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얻으며 이를 통하여 성취감을 얻고 사회적으로 통합되어 살아감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7]. 따라서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활은 이들이 성인기

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취업과 진학 및 지역사회로의 참여할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직업을 위해 훈련을 받거나 안정된 직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적인 작업 기능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나 이에 앞서 직업과 관련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및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은 직업의 필요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발달장애 청소년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를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적 역할의 획득과 독립된 형태의 직업생활 유지로 볼 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달장애 청소년의 언어능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청소년기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특수교사 및 학부모는 발달장애 청소년이 궁극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업을 포함한 다양한 전환 영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애 청소년을 대하는 많은 교사들과 부모들은 그 학생의 장애를 이유로 혹은 학생 이해 및 현실적인 진로 정보부족으로 이를 방관한다. 부모의 현실적인 인식과 태도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 활동을 지지하거나 저해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활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요구는 발달장애 청소년 재활에 중요하다. 또한 발달장애 청소년의 언어적 수준과 사회적 의사소통 요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개인별 가변성이 높아 발달장애 청소년 별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인식과 요구도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사회참여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적, 환경적 시스템을 확대시키기 위한 기본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는 언어재활 서비스의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인식을 각 변인들과 관계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회적 의사소통 재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서비스 시행의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연령, 장애등급, 장애 유형, 언어치료기간, 장애 발견시기에 따른 의사소통 수준에 대한 부모 인식

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자녀연령, 장애 등급, 장애 유형, 언어치료기간, 장애 발견시기에 따른 의사소통 치료에 대한 부모 요구도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8]은 발달장애의 범주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뇌손상, 과잉행동, 학습 장애, 지각의 손상, 만성적인 뇌증후, 미성숙, 발달의 불균형, 교육장애, 언어장애, 신경학적 장애' 등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범주를 어떤 특정한 장애 범주에 국한하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대상자 선정 시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은 만 9세에서 24세)에 근거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장애 청소년의 부모나 주 보호자에게 총 122개의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포함된 설문지 21부를 제외하고, 총 101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 전 S 대학교 언어치료실, 사설 언어치료 센터, 장애 복지관 등에 연락을 하여 설문지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설문 참여에 동의한 기관 이용자 중 청소년기본법(9세이상 24세이하)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자에게 모바일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01)

구분	변인	빈도	백분위 (%)
응답자	아버지	6	5.9
	어머니	91	90.1
	조부모	2	2.0
	기타	2	2.0
대상자 성별	Male	64	63.4
	Female	37	36.6
대상자 연령	10~13세	30	29.7
	14~16세	7	6.9
	17~19세	26	25.7
	19세 이상	38	37.6

장애 등급	없음	13	12.9
	1등급	38	37.6
	2등급	34	33.7
	3등급	16	15.8
장애 발견시기	1세이하	15	14.9
	2~3세	46	45.5
	4~6세	31	30.7
	6~9세	8	7.9
	10세 이상	1	1.0
장애 유형	지적장애	46	45.5
	자폐성 또는 발달장애	53	52.5
	뇌성마비	2	2.0
합계		101	100.0

2. 연구도구

연구를 위하여 대상자와 발달장애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언어 이해, 언어 표현, 읽기, 쓰기 등 네 가지 언어 양식의 현재 수준과 요구도, 사회적 의사소통 요구도 6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모바일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구분	문항	인식		Chronbach's α
		인식	요구도	
언어	(구어)이해하기	8	8	.84
	(구어)표현하기	8	8	.81
	읽기	8	8	.73
	쓰기	9	9	.71
사회적 의사소통	공동업무	11		.77
	동료관계	3		
	직무	6		

3. 연구 절차

연구 절차는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설문지 문항 개발을 위하여 사전에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받은 선행 연구[9][10]의 설문지를 참조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보완 수정하여 예비 설문지를 마련하였다. 설문지 구성 중 언어 영역 별 의사소통 수준에 대한 문항은 국가 직무능력 표준(NCS)의 직업 기초 능력인 의사소통 능력의 정의에 근거하여 이해하기, 표현하기, 읽기, 쓰기로 구성하였다. 국가 직무능력 표준(NCS)의 직업 기초 능력인 의사소통 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고 자신이 뜻한 바를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11]. 사회적 의사소통 요구에 관련된 문항은 [10]을 참조하였으며, 의사소통 수준과 관련된 이해하기, 표현하기, 읽기, 쓰기와 더불어 직업적 의사소통능력과 관계되는 공통업무 의사소통, 동료관계의사소통, 직무 의사소통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들은 [12]에 근거하여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예비 조사에서는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타당도 조사에는 언어치료 학과 교수 세 명, 언어치료 센터 원장 두 명, 대학 내 언어치료 센터 이용 부모 5명이 참여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문항의 내용 및 배열 등을 수정하였다. 각 문항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문항 별 예도 첨부하였다.

세 번째, 본 조사는 2017년 10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모바일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본 조사 시 언어치료 센터, 복지관, 대학 내 언어치료 실 등에 연락을 하여 설문 취지를 알리고 설문지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설문참여에 동의한 기관 이용자 중 청소년 기본법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자에게 모바일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122부를 회수하고 그 중 101부를 내용 분석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SPSS Ver. 18.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개인별 변인에 따라서 차이를 분석하였고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연령은 대한민국 교육체계에 근거하여 10세~13세(초등학교), 14세~19세(중고등학교), 20세 이상(고졸이상)의 세 집단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집단별 차이를 Kruskal Williams test로 분석하였다.

둘째, 장애 발견 시기는 미국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13]에 명시된 조기 개입 분류 기준에 따라 3세를 기준하였으며 3세 이전과 4세 이상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그 차이를 Mann-Whitney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장애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1급, 2급, 3

급)에 근거하였으며 집단별 차이를 Kruskal Williams 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장애 유형은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공식적인 장애 판정 유형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Mann-Whitney test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언어치료 기간은 5년 미만, 6년~10년미만, 10년 이상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 차이를 Kruskal Williams test로 분석하였다.

자녀 연령과 장애 등급, 언어치료 기간에 대한 집단 간 사후 검정을 위해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발달장애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영역 별 수준 인식과 사회적 의사소통 요구정도를 발달장애 청소년의 연령, 장애 발견 시기, 장애 등급, 장애 유형, 언어치료 기간에 따라 알아보고 그 차이를 비모수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녀 연령, 장애 등급, 언어 치료 기간에 대한 각 집단 간 차이는 사후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1. 자녀 연령 별 차이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모집된 대상자를 대한민국 교육체계에 근거하여 10세~13세(초등학교), 14세~19세(중고등학교), 20세 이상(고졸이상)의 세 집단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Kruskal 검정을 통한 점수 분포 경향과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표 3.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 인식 차이

구분		M	SD	χ^2	P
이해하기	10~13세	2.63	1.28	9.32	.009**
	14~19세	2.27	1.11		
	20세이상	2.40	1.15		
표현하기	10~13세	2.75	1.32	30.79	.000***
	14~19세	2.32	1.15		
	20세이상	2.11	1.07		

읽기	10~13세	2.47	1.23	8.29	.016*
	14~19세	2.16	1.23		
	20세이상	2.37	1.18		
쓰기	10~13세	2.19	1.13	2.49	.288
	14~19세	2.27	1.30		
	20세이상	2.37	1.25		

***: p < .001, **: p < .01, *: p < .05

자녀 연령에 따라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부모 인식도는 언어 이해하기, 언어 표현하기, 읽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 검정 결과 이해하기 영역에서는 10~13세 집단과 11~19세 집단 (P<.01)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표현하기 영역은 10~13세 집단과 14~19세 집단이(P<.01), 10~13세 집단과 20세 이상 집단이(P<.001)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읽기 영역에서는 10~13세 집단과 14~19세 집단이(P<.05)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자녀 연령에 따라 의사소통 요구도에 차이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 요구도 차이

구분	M	SD	X ²	P	
이해하기	10~13세	3.72	1.50	45.63	.000***
	14~19세	4.59	.71		
	20세이상	4.28	.97		
표현하기	10~13세	3.78	1.44	54.47	.000***
	14~19세	4.60	.75		
	20세이상	4.39	.87		
읽기	10~13세	4.08	1.26	18.62	.000***
	14~19세	4.51	.92		
	20세이상	4.27	.97		
쓰기	10~13세	4.15	1.24	9.55	.008**
	14~19세	4.44	1.03		
	20세이상	4.36	.91		
공통업무	10~13세	3.88	1.28	101.01	.000***
	14~19세	4.61	.80		
	20세이상	4.52	.86		
동료관계	10~13세	3.08	1.64	68.04	.000***
	14~19세	4.55	.99		
	20세이상	4.56	.70		
직무	10~13세	4.31	.99	8.26	.016*
	14~19세	4.47	.88		
	20세이상	4.58	.70		

***: p < .001, **: p < .01, *: p < .05

자녀 연령에 따라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요구도 차이는 이해하기, 표현하기, 읽기, 쓰기, 사회적 의사소통(공

통업무, 동료관계, 직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이해하기 영역에서는 10~13세 집단과 14~19세 집단(P<.001), 10~13세 집단과 20세 이상 집단(P<.001)이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현하기 영역은 10~13세 집단과 14~19세 집단(P<.01), 10~13세 집단과 20세 이상 집단(P<.001)이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읽기 영역에서는 10~13세 집단과 14~19세 집단이(P<.001), 14~19세 집단과 20세 이상 집단이 (P<.001)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쓰기 영역은 10~13세 집단과 14~19세 집단(P<.01), 10~13세 집단과 20세 이상 집단(P<.05)이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공통업무 영역은 10~13세 집단과 14~19세 집단(P<.001), 10~13세 집단과 20세 이상 집단(P<.001) 이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동료관계 영역은 10~13세 집단과 14~19세 집단(P<.001), 10~13세 집단과 20세 이상 집단(P<.001)이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직무 영역은 10~13세 집단과 20세 이상 집단(P<.001) 이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2. 장애 발견 시기 별 차이

장애 발견시기에 따른 차이는 3세 이전과 4세 이상으로 두 집단 간 평균과 표준편차 및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표와 같다.

표 5. 발견시기에 따른 부모 인식 차이

구분	M	SD	Z	P	
이해하기	3세이전	2.33	1.13	-3.03	.002**
	4세이상	2.62	1.27		
표현하기	3세이전	2.23	1.12	-1.73	-4.291
	4세이상	2.64	1.31		
읽기	3세이전	2.30	1.17	-.73	.465
	4세이상	2.40	1.28		
쓰기	3세이전	2.23	1.19	-.91	.361
	4세이상	2.35	1.28		

** : p < .01

장애 발견시기에 따라 의사소통 수준에 대한 부모 인식의 차이는 이해하기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장애 발견시기에 따른 의사소통 요구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 Mann-Whitney 검정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발견시기에 따른 부모 요구도 차이

구분	M	SD	Z	P
이해하기	3세이전	4.21	-1.73	.083
	4세이상	4.13		
표현하기	3세이전	4.27	-2.18	.029*
	4세이상	4.21		
읽기	3세이전	4.13	-6.22	.000***
	4세이상	4.49		
쓰기	3세이전	4.20	-5.33	.000***
	4세이상	4.48		
공통업무	3세이전	4.39	-.92	.358
	4세이상	4.24		
동료관계	3세이전	4.33	-2.88	.004**
	4세이상	3.66		
직무	3세이전	4.46	-.14	.893
	4세이상	4.46		

***: p < .001, **: p < .01, *: p < .05

장애 발견시기에 따라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요구도 차이는 표현하기, 읽기, 쓰기, 사회적 의사소통 영역의 동료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장애 등급 별 차이

장애 등급에 따른 부모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을 ‘없음’, 1급, 2급, 3급, 4급 등 네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Kruskal-Wallis 검정을 통해 점수 분포의 경향과 집단 차이를 알아보았고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장애등급에 따른 부모 인식 차이

구분	M	SD	χ ²	P	
이해하기	없음	3.32	100.10	.000***	
	1급	2.15			1.07
	2급	2.18			1.09
	3급	2.96			1.13
표현하기	없음	3.40	140.67	.000***	
	1급	2.10			1.11
	2급	2.01			.97
	3급	3.08			1.15

읽기	없음	2.58	1.13	49.22	.000***
	1급	2.33	1.28		
	2급	2.00	1.10		
	3급	2.88	1.18		
쓰기	없음	3.96	1.55	46.93	.000***
	1급	4.14	1.09		
	2급	4.47	.85		
	3급	4.44	1.00		

***: p < .001

장애 등급에 따른 의사소통 영역 수준의 부모 인식의 차이는 이해하기, 표현하기, 읽기, 쓰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 검정 결과 이해하기는 ‘없음’ 집단과 1급 집단 간(P<.001), ‘없음’집단과 2급 집단 간(P<.0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1급 집단과 3급 집단 간(P<.001), 2급 집단과 3급 집단 간(P<.0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현하기 영역은 ‘없음’ 집단과 1급 집단 간(P<.001), ‘없음’ 집단과 2급 집단 간(P<.001), 2급 집단과 3급 집단 간(P<.0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읽기 영역에서는 ‘없음’집단과 2급 집단간(P<.01), 1급 집단과 2급 집단 간(P<.05), 1급 집단과 3급 집단 간(P<.01), 2급 집단과 3급 집단 간(P<.0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쓰기 영역에서는 ‘없음’ 집단과 3급 집단 간(P<.01), 1급 집단과 2급 집단 간(P<.001), 2급 집단과 3급 집단 간(P<.0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장애 등급에 따른 의사소통 요구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 Kruskal-Wallis 검정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장애등급에 따른 부모 요구도 차이

구분	M	SD	χ ²	P	
이해하기	없음	3.23	1.76	75.42	.000***
	1급	4.13	.93		
	2급	4.56	.848		
	3급	4.25	1.24		
표현하기	없음	3.11	1.64	78.52	.000***
	1급	4.34	.83		
	2급	4.53	.81		
	3급	4.34	1.19		
읽기	없음	3.96	1.55	23.86	.000***
	1급	4.14	1.05		
	2급	4.47	.85		
	3급	4.44	1.00		

쓰기	없음	4.03	1.48	70.52	.000***
	1급	4.10	1.04		
	2급	4.50	.91		
	3급	4.64	.90		
공통업무	없음	3.28	1.42	148.73	.000***
	1급	4.34	.99		
	2급	4.63	.77		
	3급	4.53	.86		
동료관계	없음	1.38	.85	117.64	.000***
	1급	4.52	.63		
	2급	4.56	.95		
	3급	4.08	1.20		
직무	없음	4.42	.78	52.25	.000***
	1급	4.17	1.03		
	2급	4.68	.65		
	3급	4.70	.67		

***: p < .001

장애 등급에 따른 의사소통 요구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이해하기, 표현하기, 읽기, 쓰기, 사회적 의사소통(공통업무, 동료관계, 직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검정 결과 이해하기에서 ‘없음’ 집단과 1급 집단 간(P<.001), ‘없음’ 집단과 2급 집단 간(P<.001), ‘없음’집단과 3급 집단 간(P<.0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1급 집단과 2급 집단 간(P<.001)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현하기는 ‘없음’ 집단과 1급 집단 간(P<.001), ‘없음’ 집단과 2급 집단 간(P<.001), ‘없음’집단과 3급 집단 간(P<.0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읽기 영역은 ‘없음’ 집단과 2급 집단 간(P<.01), ‘없음’ 집단과 3급 집단 간(P<.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1급 집단과 2급 집단 간(P<.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쓰기 영역에서는 ‘없음’ 집단과 2급 집단 간(P<.01), ‘없음’ 집단과 3급 집단 간(P<.0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1급 집단과 2급 집단 간(P<.001), 1급 집단과 3급 집단 간(P<.0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공통업무는 ‘없음’ 집단과 1급 집단 간(P<.001), ‘없음’ 집단과 2급 집단 간(P<.001), ‘없음’ 집단과 3급 집단 간(P<.0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1급 집단과 2급 집단 간(P<.001)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동료관계는 ‘없음’ 집단과 1급 집단 간(P<.001), ‘없음’ 집단과 2급 집단 간(P<.001), ‘없음’ 집단과 3급 집단 간(P<.0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1급 집단과 3급 집단 간(P<.05), 2급 집단과 3급 집단 간(P<.05)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직무 영역

에서는 1급 집단과 2급 집단 간(P<.001), 1급 집단과 3급 집단 간(P<.0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4. 장애 유형 별 차이

장애 유형에 따른 차이는 자녀가 장애 등급과 언어치료사를 통해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로 판정 받은 대상자들에 대해서 두 집단 간 평균과 표준편차 및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준에 대한 부모 인식 차이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장애유형에 따른 부모 인식 차이

구분		M	SD	Z	P
이해하기	지적장애	2.38	1.130	-1.53	.127
	자폐	2.24	1.146		
표현하기	지적장애	2.51	1.219	-5.25	.000***
	자폐	2.01	1.005		
읽기	지적장애	2.55	1.240	-4.80	.000***
	자폐	2.08	1.185		
쓰기	지적장애	2.40	1.268	-1.95	.052
	자폐	2.20	1.254		

***: p < .001, **: p < .01, *: p < .05

장애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표현하기, 읽기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도 차이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장애유형에 따른 부모 요구도 차이

구분		M	SD	Z	P
이해하기	지적장애	4.40	1.017	-3.77	.000***
	자폐	4.22	.950		
표현하기	지적장애	4.42	.995	-1.86	.062
	자폐	4.39	.822		
읽기	지적장애	4.32	1.008	-.81	.421
	자폐	4.30	.963		
쓰기	지적장애	4.42	1.019	-4.01	.000***
	자폐	4.25	.967		
공통업무	지적장애	4.52	.946	-2.18	.030*
	자폐	4.47	.839		
동료관계	지적장애	4.42	1.036	-.84	.400
	자폐	4.47	.751		
직무	지적장애	4.63	.774	-5.30	.000***
	자폐	4.26	.942		

***: p < .001, **: p < .01, *: p < .05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요구도 차이는 이해하기, 쓰기, 공통업무, 직무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5. 언어 치료 기간 별 차이

언어치료 기간에 따른 부모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을 '5년 미만', '6~10년', '10년 이상' 세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Kruskal-Wallis 검정을 통해 점수 분포의 경향과 집단 차이를 알아보고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언어치료 기간에 따른 부모 인식 차이

구분		M	SD	χ^2	P
이해하기	5년미만	2.76	1.20	28.44	.000***
	6~10년미만	2.53	1.17		
	10년이상	2.19	1.18		
표현하기	5년미만	2.80	1.20	1.20	.000***
	6~10년미만	2.36	1.13		
	10년이상	2.19	1.26		
읽기	5년미만	2.49	1.15	5.05	.080
	6~10년미만	2.30	1.12		
	10년이상	2.28	1.34		
쓰기	5년미만	2.20	1.12	7.59	.022*
	6~10년미만	2.38	1.19		
	10년이상	2.14	1.28		

***: p < .001, **: p < .01, *: p < .05

언어치료 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이해하기, 표현하기, 쓰기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검정 결과 이해하기는 '5년 미만'과 '10년 이상' 집단 간(P<.0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현하기는 '5년 미만'집단과 '6~10년 미만'집단 간(P<.01), '5년 미만'집단과 '10년 이상' 집단 간(P<.0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언어치료 기간에 따라 의사소통 요구도에 대한 차이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언어치료 기간에 따른 부모 요구도 차이

구분		M	SD	χ^2	P
이해하기	5년미만	3.94	1.37	19.65	.000***
	6~10년미만	4.36	1.17		
	10년이상	4.23	.99		
표현하기	5년미만	4.03	1.24	19.00	.000***
	6~10년미만	4.38	1.16		
	10년이상	4.32	.96		
읽기	5년미만	4.18	1.02	7.16	.028*
	6~10년미만	4.26	1.26		
	10년이상	4.40	.88		
쓰기	5년미만	4.35	1.02	7.49	.024*
	6~10년미만	4.33	1.22		
	10년이상	4.33	.93		
공통업무	5년미만	4.25	1.04	6.43	.040*
	6~10년미만	4.31	1.23		
	10년이상	4.41	.88		
동료관계	5년미만	3.52	1.58	15.29	.000***
	6~10년미만	4.22	1.38		
	10년이상	4.26	1.14		
직무	5년미만	4.47	.81	3.83	.147
	6~10년미만	4.47	1.03		
	10년이상	4.50	.67		

***: p < .001, **: p < .01, *: p < .05

언어치료 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이해하기, 표현하기, 읽기, 쓰기, 공통업무, 동료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해하기는 '5년미만' 집단과 '6~10년 미만'집단 간(P<.01), '5년 미만'과 '10년 이상' 집단 간(P<.05)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동료관계 영역에서 '5년미만' 집단과 '6~10년 미만'집단 간(P<.01), '5년 미만'과 '10년 이상' 집단 간(P<.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 청소년의 언어 영역 별 수준과 언어 영역 별 요구, 사회적 의사소통의 요구 정도를 조사한 후, 발달장애 청소년의 개인적 변수가 언어영역 수준과 사회적 의사소통 요구에 어떠한 영향을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청소년의 언어 영역 별 수준, 언어 영역 별 요구, 사회적 의사소통의 요구 정도를 조사하고 이를 자녀 연령, 장애 등급, 장애

발견 시기, 언어 치료 기간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른 결론 및 논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 청소년의 의사소통 수준 인식과 요구도는 장애 청소년 연령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 연령에 따라 의사소통 수준에 대한 부모 인식도 차이는 이해하기, 표현하기, 읽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영역과 집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이해하기 영역에서는 10~13세 집단의 평균은 2.63이며 14~19세 집단의 평균은 2.27로 수준이 더 낮게 인식하였다. 또한, 표현하기 영역은 10~13세 집단은 평균 2.75이며, 14~19세 집단은 2.32, 10~13세 집단에 비해 20세 이상 집단은 2.11로 더 낮은 평균이 나타났고 읽기 영역에서도 같은 현상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연령에 대한 사회적 역할 기대와, 소속된 교육과정과 관련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보다 중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더욱 능력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질 것이며 상대적으로 수준에 대한 평가도가 낮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자녀 연령에 따라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영역에서는 10~13세 집단의 평균은 3.72이며, 14~19세 집단의 평균은 4.59이고, 10~13세 집단에 비해 2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은 4.28이다. 연령에 따른 요구도는 수준인식과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는 표현하기와 같은 현상이었다. 그러나 읽기에서는 10~13세 집단의 평균이 4.08이고 14~19세 집단의 평균이 4.44이며, 14~19세 집단에 비해 2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이 4.36으로 낮아졌다. 이는 쓰기에서도 같은 현상이었다. 이는 교육과정 내에서의 요구와 관련 있을 것이며 20세 이상이 되면 교육과정보다는 취업, 대인관계 등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언어 영역에 대한 요구도 평균은 낮아지지만, 사회적 의사소통은 연령의 집단이 높을수록 요구도의 평균이 높아졌다. 이는 연령에 따른 부모의 요구도가 사회적 기대와 관련이 있으며 발달장애 청소년이 20세 이전에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준비가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령과 관련한 부모 요구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요구는 초등부 부모, 유치부 부모, 중등부 부모, 고등부 순으로 높아진다[14]가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자녀 연령에 따른 장애아 부모의 언어치료 실태 및 요구에서 청소년기는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15], 고학년으로 갈수록 필요한 취업이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관련된 프로그램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16]도 본 연구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 의사소통 요구도 증가에 대한 결과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적 특성에 따른 요구와 필요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고 연령적 내용이 반영된 차별적 프로그램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되며, 이러한 결론은 언어치료 효과와 만족도를 위해 연령과 같은 개별적인 요구에 따른 인식을 이해하고 현직 적용이 필요하다고 한 [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발달장애 청소년의 의사소통 수준 인식과 요구도는 장애 발견 시기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발견시기에 따라 의사소통 영역에 수준 인식은 이해하기 영역에서 3세 이전 집단의 평균이 3.33, 4세 이상의 집단 평균이 2.62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의사소통 요구는 이해하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표현하기 영역은 3세 이전의 집단 평균이 4.27, 4세 이상 집단이 4.21로 나타났고 읽기, 쓰기 영역에서는 3세 이전 집단이 4세 이상 집단보다 평균이 낮았다.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도 차이는 표현하기, 읽기, 쓰기, 사회적 의사소통 영역의 동료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진단시기에 따른 일관된 결과가 산출되지는 않았다. 이는 장애 진단 시기 외 장애의 유형, 장애의 정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장애 진단 시기는 장애의 중재 시작 시기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구체적 지원을 시작하게 하는 필수조건으로 강조된다. [17]은 발달장애아들은 이들이 나타내는 위험적 요소로 인해 발달에 문제가 나타나므로 발달 촉진을 위해 환경적 교육적 장애를 보상하는 조기 발견과 조기 중재의 노력이 절대적이라 하였다. 따라서 조기 진단의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진단 시기와 그 결과적 차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 발달장애 청소년의 의사소통 수준 인식과 요구도는 장애 등급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장애 등급에 따른 의사소통 영역 수준의 부모 인식의 차이는 이해하기, 표현하기, 읽기, 쓰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집단을 살펴보면, 이해하기에서 '없음'집단의 평균 3.32와 1급 집단의 평균 2.15, '없음'집단에 비해 2급 집단의 평균은 2.18, 1급 집단에 비해 3급 집단의 평균은 2.96 2급 집단과 3급 집단 간의 차이를 보면, 장애가 없거나 급수가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었다. 장애 등급에 따른 의사소통 요구도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표현하기, 읽기, 쓰기, 사회적 의사소통(공통업무, 동료관계, 직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집단 간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은 장애가 없거나 급수가 높을수록 요구도의 평균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 등급 별 특성이 상이하고 이에 따른 생활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18]의 연구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장애 급수 별 표현 언어 특성은 차이가 있으며 발달장애 학생들이 독립과 자율성이라는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장애 급수별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19]는 장애 등급이 중증일수록 직업 교육의 요구도가 높으며, 중증일수록 자립교육의 요구도가 높다하여 장애 등급별 교육적 요구도도 차이가 있음을 말하였다. 이에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시 장애등급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발달장애 청소년의 의사소통 수준 인식과 요구도는 장애 유형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장애 유형에 따른 자녀의 의사소통 수준 인식은 표현하기, 읽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평균을 살펴보면 자폐가 지적장애보다 낮았다. 이는 부모들이 자폐 청소년들의 언어적 문제를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요구도 차이는 이해하기, 쓰기, 공통업무, 직무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지적장애의 의사소통 요구도 평균이 자폐보다 높았다. 이는 지적장애 부모들의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언어의 발달은 지적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등 많은 기타 발달적 특성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각 장애 유형의 특성에 따라 언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의 종류와 정도는 다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애 유형 별 언어 발달적 특성과 이와 관련된 부모의 치료적 요구 정도와 내용은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이에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장애 유형 별 독특한 특징에 따라 그 내용과 지도법이 다르게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발달장애 청소년의 의사소통 수준 인식과 요구도는 언어치료의 기간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언어치료 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이해하기, 표현하기, 쓰기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사후 검정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치료의 기간이 많은 집단일수록 평균의 점수가 높았다. 이는 언어 치료 기간이 긴 부모들의 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언어치료의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소통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였을 가능성과 함께 더 많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20]의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의 이용기간이 길수록 이용자의 요구 충족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기간 유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의사소통 지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발달장애 보호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청소년의 의사소통 수준 인식과 요구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육자의 요구도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발견에서부터 사회참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적 접근법과 지원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발달장애의 전 생애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발달장애 행동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21]이나 발달장애 관리센터 설립[22]에 대한 주장들이 있지만, 본 연구는 더 의사소통 및 언어치료의 최종적인 목적을 사회참여에 두고 언어치료의 요구도 반영 및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참여와 의사소통적 측면에서 발달장애의

발달장애 청소년의 직업영역에 필요한 언어 수준을 부모의 인식과 관련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회 참여와 의사소통적 측면에서 발달장애의 발달장애 청소년의 직업영역에 필요한 언어 수준을 부모의 인식과 관련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지역 사회, 학교, 학부모가 연계된 종합적인 접근은 장애 학생들의 성공적인 가정, 학교, 지역생활을 예상하게 하는 기초 요소로 이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본 절차로 양육자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밝히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접근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23] 결론적으로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언어 치료는 대상자들의 개인적 변인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의 사회적 의사소통 치료 요구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언어 언어치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회적 의사소통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이병주, 미술치료가 자폐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2] 박선원,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체계와 사회갈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1호, pp.594-610, 2017.
- [3] 이수진, 발달장애 청소년의 어휘력 및 행동 변화를 위한 동화 활용 미술치료 단일사례,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4] 임준구, 개별 사회적응훈련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5] 장진아,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강점관점 사례관리 모델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6] 이채수, 김연표,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기능성 언어게임의 개발 및 적용 가능성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pp.287-298, 2017.
- [7] 조경연, 성인정신지체인의 직업관련 기초기능 학습-지역사회기술-언어능력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8] 남영진,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정책의 재형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9] 김지현,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언어치료 요구 및 실태 조사 연구, 남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0] 유은희, 사회적 훈련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의 언어성·사회성 및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11] 이상훈, NCS 의사소통능력 과목 수강이 자기효능감, 스피치능력,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12] 양소호, Likert 형 척도의 반응 형식에 따른 선호도 비교: 범주의 수와 중립반응 범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13] US Department of Education, IDEA 2004 resources, Available at : <http://www.ed.gov/policy/speced/guid/idea/idea2004.html>. Accessed 2005.07.22.
- [14] 최성규, 김희경, “청각장애아의 동적가족화와 의사소통 욕구의 상관관계,” 미술치료연구, 제6권, 제1호, pp.25-146, 1999.
- [15] 김지현, 황상심, “자녀 연령에 따른 장애아 부모의 언어치료 실태 및 요구 조사,” 언어치료연구, 제22권, 제1호, pp.273-297, 2013.
- [16] 김수진, “치료지원 바우처사업 대상아동의 장애 유형과 연령에 따른 재활치료 실태 및 부모 요구 조사,” 언어청각장애 연구, 제13권, 제4호, pp.691-706, 2008.
- [17] 연진숙, 장애유아 부모의 장애 발견 및 자녀교육의 과정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18] 강연우,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자기표현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19] 최효진, 장애아동 부모의 미술치료 서비스 요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20] 송주미, 초등학교 발달장애 아동의 체육 듣기 및 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에 관한 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1] 홍경기, 송호광, 오매화, 오윤혜, 박수빈, 김예나, 최성구, “발달장애 문제행동 치료 가이드라인 제 작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신경정신의학, 제57권, 제2호, pp.190-208, 2018.

[22] 우영종, “발달장애 개념과 소아과 의사 역할,”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제49권, 제10호, pp.1031-1036, 2006.

[23] 이하늬, 정신지체 특수학교 진로· 직업교육 실 태에 관한 학부모 인식 및 요구 조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저 자 소 개

박 현(Hyun Park)

정회원



- 2006년 2월 : 대구대학교 언어재 활과(이학석사)
- 2010년 8월 : 대구대학교 언어재 활과(이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상지영서대 언어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 조음장애, 청각장애

이 명 순(Myung-Soon Lee)

정회원



- 2003년 8월 : 대구대학교 언어재 활과(이학석사)
- 2009년 2월 : 대구대학교 언어재 활과(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상지영서대 언어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 신경언어장애, 음성장애